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
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
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2:2-3

통 권_제 223호

발행처_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_2008년 2월 24일

함즐함울

www.pcltv.org

12단계 성경공부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기초부터 대사회적 문제까지

3월 5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12
단계 성경공부가 긴 여행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기독교교육학 박사인
박원호 담임목사가 모든 자료를 연구
하고 준비했으며, 이미 디트로이트
한인교회에서 전 과정을 강의한 바
있는 12단계 성경공부가 주님의교회
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
다.

각 단계는 약 3개월간의 커리큘럼
을 가지고 있고, 각 단계가 마치면 수
료패가 수여되고 한 달간의 방학에
들어간다.(수료패는 등록한 사람에
한하여 수여하며 이 기간에도 수요일
배는 계속 진행된다.) 3월부터 시작
되는 1단계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이다. 새롭게 기독교를 받
아드린 사람들은 물론 오래 동안 신
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도 기독교
와 믿음의 기초를 재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첫 등록을 받기 시작한 지난주일은
신청인원이 무려 1,090여명에 이르
렀다. 신청자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
라 수요일반과 토요일반으로 나누어 강의
에 참석하게 된다. 담임목사가 직접
인도하는 강의는 약 60분간 이루어진
다.



12 steps 성경공부

이제 출발합니다!

1단계 개강 3월 5일 (수요일) 대예배실
3월 8일 (토요일) 소예배실

성경공부 준비팀은 1,000명이 넘는
신청자들의 출결을 관리하는 것은 물
리적으로 불가능해 교회성경공부로
는 최초로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
기로 했다. 이미 시험가동을 마쳤으
며 수강자들은 강의에 참석할 때 단
말기가 본인의 카드를 인식하도록 해
야 한다. 그 방법은 버스나 지하철 카
드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단 카드를
발급할 때에 3,000원의 발급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것은 무분별한 카
드발급으로 교회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카
드를 반납할 때에는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한 보증금이다.

12단계 성경공부는 마라톤과 같은
긴 여행이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차분하면서도
즐겁고 밟아가는 여행의 동반자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현령 목사

로 템 나 무

천국의 열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
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
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5:20)

내 안에 있는 교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른다.
조금만 남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어느새 교만
해진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의로우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당시에는 최고의
수준이었다.

적어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런데 바로 그 수준보다 더 높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이다.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
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
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18:1-3)

주님!
제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을 봅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엄혜숙 기자

12 단계 성경공부 안내

1. 모두를 환영합니다!

- 12단계 성경공부는 등록과 상관없이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인터넷강좌포함)
- 등록은 강의수료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한하며 강의를 수료한 사람에게는 매
단계를 마칠 때마다 그 사실이 교회에
기록되고 수료패가 수여됩니다.
- 수강신청은 2월 24일, 오늘까지입니다.

2. 출석과 수료

- 모든 강의에 100% 참여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합니다. 각 단계 당 2번을 초과
결석하면 수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출장 등의 이유로 강의에 참석할 수 없
을 때에는 인터넷강의를 듣고 과제자료
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강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메일로 송부해야 출석
으로 인정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분은 설만한
물가에서 강의테이프를 구매해서 비치
되어있는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
니다.
- 강의 신청자에게 [출석확인카드]가 배
부되며 강의에 참석하는 모든 분은 매
주 예배실 입구의 출결관리 단말기에
카드를 대고 출석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출석확인카드는 무분별하게 카드가 발
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3,000원의 보
증금을 받습니다. 카드를 반납 할 경우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 카드를 지참하지 않고 강의에 참석하신
분은 당일 [12단계 자원봉사자]에게 출
석확인을 꼭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않
으면 출석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요일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후)토요일반에 참석하여 같은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요일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전)수요일반에 참석하여 같은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 시험(과제)은 각단계의 과정 중에 배부
되며 각 단계를 마치기전 제출해야 수
료로 인정합니다.

3. 인터넷강의

- 인터넷강의는 해외(지방)거주나 직장,
(영아)육아 등의 이유로 도저히 교회에
올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교구/지역목
사와 상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수강신청자는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넷강의를 듣고 과제자료를 다운받
아 작성한 후 강의일로부터 2주 이내
에 이메일로 송부해야 출석으로 인정합
니다.

*12단계성경공부
를 신청하시는 성
도분들은 반드시
배부되는 출석확
인카드를 지참해
야 합니다.



담임목사 주일설교	2면
구역모임개강	3면
나의신앙이야기_이영남	3면
태안봉사수기_Gerry Brooks	4면



“광야를 기억하라!”

신명기 8:1~3, 히브리서 12:6~10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짐이 주어진다면 감당하시겠습니까? 만일 로마의 길과 이들의 길을 선택하라면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일 년에 한 차례씩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감당했던 그 사랑의 수고를 나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의 설 명절은 3월 중순입니다. 그 때를 한해의 시작으로 삼는 이유는 그 때가 유월절(Passover)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애굽과 달리 해나 달의 움직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깐 달력이나 태양력이라고 말해도 안되고, 하나님력(God's calendar)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양력을 따라가는데 이들만은 오늘도 하나님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때가 되면 대개 수난절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도 이 때를 한 해의 시작으로 삼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의 삶은 고난의 기간

오늘 구약의 본문은, 유대 민족의 삶과 믿음에 깊이 베여있는 말씀입니다. “광야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애굽을 나왔습니다. 숙곳을 떠나,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과 한 백성이 거룩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광야를 거쳐서, 여리고를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광야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처음 출발했던 어린 아이들은 이제 장년이 되었고, 청년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년이 되었고, 장년들이나 노년들은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수 백명이 40년 간을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었다고 믿었던 그 길을 40년을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이 민족들에게 40년의 기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광야는 고난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기억하라는 말은 그 고난을 잊지 말고 그 고난을 오늘을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으란 뜻입니다. 이 민족이 겪었던 그 고난의 기간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부끄러운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신앙의 여정

광야를 기억하는 첫 번째 이유로 신앙의 삶은 여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두 세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 받은 지 40년 만에야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구원은 여정입니다. 애굽에서 시작되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신앙의 삶은 오늘 믿기에 완성되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시작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완성되는 여정의 삶입니다. 여정이기때, 여기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

습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바로 그 목적과 방향과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정이기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는 삶입니다. 한 날, 한 해가 지나갈수록 우리의 삶은 목표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신을 부인함으로 주님을 더욱 닮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음으로 세상의 욕심들을 이겨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해져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뜻입니다.

광야의 삶이기때 우리는 때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반드시 편하고 쉬운 길만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돌부리가 없겠습니까? 왜 추위가 없겠습니까? 왜 목마름이 없겠고 굶주림이 없겠습니까? 왜 원수들이 없겠습니까? 이 때문에 넘어지기도 했고 죄를 짓기도 했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큰 일이었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것도 여정이 일부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성숙케 하였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삶은 주님의 십자가

그런데 광야를 빼버리거나, 심지어 소홀히 여기면 이는 거짓 복음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도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팽창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소망이 있고, 기독교가 이 소망에 대해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40년의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편과 거짓 종교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게 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거짓입니다. 광야가 없는 기독교는 아무리 떡이 넘쳐도, 아무리 성전 꼭대기가 높아도, 아무리 세상 영화를 다 가져도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감추어 버리면, 사람들은 벌레처럼 교회로 몰려듭니다. 거기가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을 받는다는데 왜 안 오겠습니까? 모두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은총을 말해도 광야를 빼버리면 이는 변질된 은총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도, 광야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거짓 능력입니다.

광야의 목적

본문에서는 광야의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

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생겨야 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룩한 용기가 생겨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통해 받을 복은 소유의 축복이 아니라 존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하여 지고 소망이 거룩하여 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거룩하여 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되,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와 마음으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과 인격의 관계,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의 훈련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이 친히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지식과 의지로도 결코 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을 낮추시며 주리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애굽의 역사가 뿌리 깊이 베여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배가 고프거나 목마르면 당장 돌아가자고 할 것입니다. 이 습관이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판단도 다 결정할 것입니다. 노예의 습관이 있습니다.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무엇이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노예의 습관이 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주어진 것만 즐기려는 게으름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제 훈련을 통해 이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훈련입니다. 아울러 어느 일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모습을 낮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내적인 생명의 역사요, 교회의 능력도 바로 이 능력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도우시며, 어려울 때마다 반석에서 불을 내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만나로써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시작하신 믿음의 여정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늘 광야를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삶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어지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구역모임,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월 7일 금요일부터 2008년 구역모임이 시작된다. 구역모임은 교회가 숨을 쉬는 생명력의 원천으로 참된 교제와 나눔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구역모임,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우동윤 목사

하나님은
서로의 만남을 통해 찾아오시고,
서로를 향한 섬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공급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서로의 언어와 손길을 통하여
마음과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신다.
하나님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연약함을 품어주는 관계 속에
하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신다.
떨어져있던 우리를 가까이 부르셔서
때로 감추고 싶은 상처가 드러나게 하시고,
서로의 손길을 통해 싸매어주신다.
상처가 변하여 서로를 치료하는 약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상처와 모순투성이의 우리를 통해 이웃
을, 세상을 치유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나라의 겨자씨가 될 것이다.
3월! 다시금 서로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기를,
겨울의 동면을 뚫고 서로의 마음을 끌어안을 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머지않아 우리의 담장 너머에도 하나님나라를 꽃
피울 수 있기를 원하며...!

구역모임이 참여가 힘든 분들 에게...

Q 저는 봉사부서에만 참여하려 하는데, 봉사참여하는 것으로 대신하면 안될까요?

A 봉사부서에서 말씀과 서로를 위한 기도, 서로의 삶을 나누는 전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봉사부서는 사역중심의 성격이기에 서로 깊은 만남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인적인 만남을 통한 신앙생활이 전제되지 않을 때, 많은 봉사는 자칫 영적 탈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Q 저는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 성경공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대신하면 안될까요?

A 구역모임에 성경공부의 요소가 있습니다. 단, 구역모임은 성경공부를 넘어 영적인 가정생활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학원이나 학교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사랑의 교감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생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가정생활이라 할 수 있는 구역 공동체가 없이 교회의 프로그램, 성경공부만을 참여하는

것은 자칫 학원과 학교만을 다니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는 학생과 같습니다.

Q 저는 너무 바쁩니다. 시간이 없어요!

A 아마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영적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방법이 바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군요. 그러나 바쁜 것을 따라가다보면 급한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신앙과 삶의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간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합시다.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투자하여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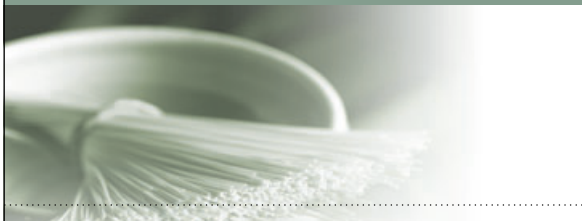
Q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이 영 부담스럽습니다. 상처주고받기도 싫구요. 할가분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군요!

A 세상에서도 부대껴 지치는 마당에 교회에 와서까지 부대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해가 갑니다. 당분간은 만남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도의 만남과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사람, 한사람과의 만남과 섬김이 없는 하나님나라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수투성이의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 이루어가는 하나님나라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성장통을 겪기도 하겠지만, 어느덧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더 크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동체적인 만남을, 더구나 영적인 성장을 위한 만남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권면하시겠습니까?

나의 신앙 이야기



주일은 유난히 긴장과 초조함으로 분주한 새벽이다. 혹시 새벽잠에 취하면 어쩌나? 지각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서 알람시계를 들볶게 된다.

내가 주방부 새벽조원으로 봉사하게 된 것은 1997년 정신여고 주방에서 국수가 제공될 때부터이다. 그 당시 주방을 총 관리하시던 이승애 권사가 도봉산에 등산을 가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여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 때에는 주방시설이 좋지 않고 새벽봉사자들도 자주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계속 봉사자가 필요했다. 내가 주일에도 새벽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봉사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여 시작한 것이 10년이 넘게 되었다. 1998년부터는 지금의 주방에서 국수를 준비하게 되었다. 주방담당권사의 임기는 6개월이다.

담당권사님이 바뀔 때마다 주방시설개보수, 메뉴개발, 위생관리 등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많은 발전을 했다. 국수 국물은 멸치를 주재료로 하고 건새우, 북어대가리, 무, 양파, 다시마, 마른고추, 통후추, 마늘, 파 등으로 우려내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주님의 교회 특유의 건강을 지키는 웰빙 국수의 진수이다. 3000명에 가까운 교인들의 건



강을 지키고 맛의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주방부원들은 새벽 4시 30분 전후에 주방에 도착하여 주방의 환경을 한 후 조리대, 싱크대, 솔과 조리기기 세척, 수저와 행주 소독, 식탁 닦고 정리하기, 유리청소 등 분주하게 움직임으로 주방의 찬 공기가 어느덧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지며 감사한 마음으로 국수봉사를 시작한다.

국수국물 준비, 다시마 찌기, 무, 단무지 찌기, 파 찌기, 김치·단무지 담기, 국수간장 만들기, 그릇·쟁반준비, 국수 삶기 등 땀이같이 바쁜 시간을 보내

먹을거리를 위한 소명

게 된다. 새벽에 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새벽조가 거의 고정되어 있다. 현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주방담당은 김청자 권사이시다. 토요일에 무, 파, 양파, 등 1차적으로 다듬고 세척을 해 주시는 두 분의 김화진·전은숙 은퇴 권사님들, 주방관리를 하시는 백경애·이원철 부부, 류석우, 이종석, 강경훈, 김진홍·민옥기 부부, 장경애, 이혜숙, 최명희, 정운경, 이영남, 박인숙·전진호 부부, 이진법, 박기석·정옥경 부부 등이 몇 년 동안 봉사하고 있다. 산부인과 이사인 박기석 집사는 새벽에 봉사를 하시다 분당병원으로 달려가 귀중한 생명을 탄생시킨 후 다시 와서 봉사를 하기도 한다.

봉사를 하는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며 온 지면의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셔서 먹을거리(창세기 1:28-29)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린다.

이영남 권사



방과후학교 컨퍼런스

자신만의 달란트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취재 신형섭 기자

2008년 방과후학교 컨퍼런스가 2월 3일 주일 중강당에서 열렸다. 방과후학교는 학습부진으로 자신감이 부족하여 스스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한 학생들에게 개인 지도를 해 줌으로 자신감과 비전을 발견하게 해 주고 두 번째로 개인 접촉을 통해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알게 하여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현재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교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들은 토요일에 한 번 하는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참여한 학생들이 행복해 하며 자신만의 달란트를 찾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 한다고 했다.

컨퍼런스 중에 미술 프로젝트반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작품을 보여주었다.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며 자아발전과 내적치료를 할 수 있는 미술치료까지 병행을 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방과후학교에서 공부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안진아 학생의 소감문이다



방과 후 학교를 만나기 전에 저는 여러가지 상황에 가로막혀 좌절과 방황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주님께서는 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비전을 주셨고, 꿈과 희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방과 후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은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바쁜 시간을 나눠주시고 우리의 실력을 올려주시려고 주중에도 밤늦게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저의 실력은 정말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깨우쳐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새벽기도에 나아가 기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저의 입술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깊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지금도 많이 모자라고 아직 준비되어있지는 않지만... 방과 후 학교 선생님들께 많이 배우고 노력해서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써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주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엔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 예비해 놓으신 저의 길을 제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2008년 올해에도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을 보여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진아 (청년부)

군선교 위문 예배



군부대교회 사역팀에서는 새해 첫 위문예배를 2월 첫 주일(3일) 222보병연대 오칠성림교회에서 드렸다.

겨울 동안 움추려졌던 마음 속에서 기지개를 펴듯이 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참여를 하였다.

주님의교회에 처음 부임한 배현성목사는 20년 전 이 곳에서 훈련받을 때가 생각에 감회가 새롭다 하며 기드온 용사 남은자 300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군대생활을 하며 극한 상황 속에서 나약함으로 의지할 것을 찾을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며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를 실천하며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했다.

처음으로 군선교에 참여한 교우들은 이 젊은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넘쳐 제대 후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믿은 생활을 하기를 기도드렸다.

신형섭 기자

2008 사역박람회,

-2주일간 170여명 지원해

2008 사역박람회가 '받는 신앙에서 섬기는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지난 1월 20일, 27일 2주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사역박람회는 교회 내외의 다양한 사역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신청해야할지 몰라 그동안 사역에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과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사역지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행사이다. 사역박람회 때 성도들에게 배부한 사역브로셔를 참고하여 앞으로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자원봉사연결팀은 매주일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자원봉사 신청을 계속 받고 있다. 관심 있는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

박의일목사

〈태안봉사수기〉

God is truly a master healer. by Gerry Brooks



people ready to help the planet and to do

We left from church bright and early at seven o'clock. It was like most w i n t e r mornings in Korea; very cold. The bus was full of

God's work. The bus ride to the coast was exciting for me because I've never seen the Korean countryside before. It was a first hand experience I'll never forget. People living in simple houses, on simple little farms, going about their daily lives on this cold February morning.

Upon arriving, I was surprised to see how many people that were actually there. And at the same time I was happy to see all those people ready to serve and help heal

their country. Korea's solidarity as a nation never fails to impress me. At first glance the coast didn't seem to be polluted by all of the oil. I knew that many volunteers had come and gone but I was wondering how "I" was going to be able to make a difference. When taking a closer glance at the rocks on the coast, I noticed that there was still much work to be done. All kinds of oil was beneath the rocks. As I was cleaning I couldn't help but notice that even amidst all

the oil that polluted the ocean, it still looked beautiful to me.

I knew that God was doing his work through the volunteers and that everything would turn out alright. I felt closer to the land and to the people of this country during my volunteer time on the coast. I was glad that I could be a part of this restoration effort. I wouldn't trade it for anything. God is truly a master craftsman and a master healer.

〈요약〉 우리는 교회에서 이른 아침 7시에 태안으로 떠났다. 한국에서 경험한 가장 추운 겨울인 것 같았다. 하지만 버스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태안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보며 놀랐으며 나라를 위해 봉사하며 결속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오염되지 않은 것 같았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다녀갔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걱정이 되기 했다. 하지만 해안에 가까이 갔을 때 바위 위에 아직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전히 많은 기름이 바위 밑에 감추어져 있었다.

나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며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 그리고 그 땅과 내가 가까워져 감을 경험했다. 나 자신도 회복의 도구가 될 수 있었음은 정말로 행복한 일이었다. 하나님은 진정한 창조주이시며 온전한 치유자이시다.